

# 2025년 제1차 모니터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

기획·운영지원팀 / 김동현

1. 목적: 복지관 참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질 향상

## 2. 사업내용

가. 일시: 2025. 4. 8.(화) 15:00~16:00

나. 장소: 프로그램실3-1

다. 참석자: 총 7명(황주연 관장, 박찬홍 팀장, 김동현 사회복지사, 김\*자 위원, 김\*순 위원, 박\*홍 위원, 박\*권 위원)

라. 내용: 2024년 제4차 회의 의견 및 조치사항 안내, 1분기 주요 사업 안내, 위촉장 수여

## 3. 제안 및 의견수렴

제안 및 의견내용	결과
‘모니터링위원회’라는 용어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.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을 희망함.	‘모니터링위원회’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. 다만 해당 명칭은 복지관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식적인 회의체로서, 타 복지관 및 관련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. 이에 따라 기존 명칭은 유지하되, 향후 위원회 결과보고나 활동 관련 안내 시에는 쉬운 설명을 함께 덧붙여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 강사 파견, 일반인과의 교류전, 외부 기관과의 연계 시합 등 탁구 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.	현재 전문강사는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2명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외부 연계는 하반기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연합한 탁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타 지역사회 연계는 더 조사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.
장노년 프로그램 중 ‘국악’ 프로그램의 명칭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. 가능하다면 ‘사물놀이’ 등으로 변경되면 좋겠음.	‘사물놀이’란 대한민국의 전통 음악 중 하나로 쥘리, 장구, 북, 징 네 가지 전통 타악기를 사용하는 음악을 말하는 보통 무대 위에서 소규모로 연주되고 악기 연주와 함께 춤, 노래 등의 다양한 예술 형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. 현재 저희 국악 프로그램은 본 활동을 통하여 쥘리, 장구, 북, 징 외에도 보다 다양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‘사물놀이’라는 프로그램명도 좋지만 ‘쥘리’로의

제안 및 의견내용	결과
	변경을 제안드립니다, ‘쥘리’란 쥘리, 장구, 북, 징의 네 가지 악기와 나발, 태평소, 소고 등의 악기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악기 연주와 몸동작 그리고 행렬을 지어 다채로운 집단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쥘리 등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대중적 공연인 판굿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. ‘쥘리’와 ‘사물놀이’의 공통점은 농사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속놀이인 쥘리와 쥘리, 장구, 북, 징 전통악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점으로는 사물놀이는 쥘리, 장구, 북, 징 이렇게 4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지만, 쥘리는 이외 더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가 된다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앞으로 보다 다양한 악기와 활동들로 구성될 활동을 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‘쥘리’로 활동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.

## 4. 종합 평가

- 이번 모니터링위원회 회의는 김미자, 김은순, 박성홍 등 신규 위원을 포함해 위원 4인이 모두 참여하였다. 회의는 1분기 주요 사업보고, 지난 회의 제안사항 조치 결과 공유, 신규 프로그램 소개 및 이용자 불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으며, 위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제시했다.
- 위원회 명칭에 대한 직관성 강화, 스포츠 프로그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활동, 식당 운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조치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.
- 위원 4인이 전원 참석했음에도 의견 제안은 소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. 향후 회의에서는 위원 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.
- 이번 모니터링위원회 회의는 복지관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.

5. 회의 사진

